# 외지인 주택 선호지 1위는 '광주 남구·전남 담양'

### ■ 국가데이터처 2024년 주택소유 통계

14.5% • 24.7% 차지…지역 평균은 13.8% 전남 주택 소유율 울산 이어 두번째 높아

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광 주 남구와 담양군이 외지인 소유의 주택비 율이 높았다.

주택소유통계'에 따르면 지난해(11월 1일 (13.3%)다. 2023년 외지인 소유의 주택

광주·전남 지역 주택 100채 중 13채가 기준) 광주의 '개인이 소유한 주택'은 48 만2688채로 집계됐다.

이 가운데 광주에 사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은 41만8303채 (86.7%) 이며, 타지역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'2024년 에 사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은 6만4385채

비율 13.1%와 비교하면 0.2%p 상승한 수 의 주택비율과 같았다.

지난해 타 지역 소유주의 주택 비율을 살 펴보면 남구가 14.5%(1만716채)로 가장 높았고, 동구 13.8% (5444채), 서구 13.6% (1만3452채), 북구 13.2%(1만 9102채), 광산구 12.5% (1만5671채) 순이었다.

전남의 '개인이 소유한 주택'은 69만

이 가운데 전남에 사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은 59만9133채 (79.4%) 이며, 타지역 에 사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은 10만765채 (14.4%)다. 2023년(14.4%) 외지인소유

지난해 타 지역 소유주의 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담양군이 24.7% (4448채)로 가 (12.8%→12.6%), 강원(15.3%→14.8%), 장 높았고, 장성군 24.2% (3697채), 함평 군 23.6%(3039채), 나주시 22.9%(1만 229채), 곡성군 22.6% (2855채), 화순군 21.4% (4900채) 등의 순이었다.

지난해 전국 평균 외지인 소유의 주택 비율은 전년(13.7%)과 같았지만 지역별 로 상이했다.

(10.6%→10.9%), 대구(10.5%→10.6%). 광주(13.1%→13.3%), 대전(13.8%→

13.9%), 세종(30.5%→30.6%) 등이 외지 인 소유의 주택 비율이 늘어났다. 경기 충북(13.8%→13.4%), 충남(17.6%→ 17.3%), 경북(14.1%→13.8%), 제주 (12.1%→12%) 등은 비율이 감소했다.

(14.4%)은 보합을 기록했다.

전국 평균 일반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.9%로 전년 대비 0.5%p 증가했다. 소 억4000만원으로, 하위 10% 평균 주택 자 지역별로 서울(16.6%→17%), 부산 유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(64.0%), 전남 (63.4%), 경남(63.3%), 경북(62.4%) 순 이며, 광주는 58.7%를 기록했다.

작년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(공시가격기준)은3억3300만원 으로, 전년(3억2100만원)보다 1000만원 넘게 올랐다.

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 수는 1.34호, 평 균 면적은 86.4m²였다. 주택을 소유한 평 인천(17.2%), 전북(10.4%), 전남 균 가구주는 57.8세, 평균 가구원수는 2.52명이었다.

> 상위 10%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 산가액(3000만원)의 44.7배에 달했다. 2023년(40.5배)보다 자산 격차가 심화하 송태영 기자 sty1235@ 는 모습이다.

### "상생·공유경제 가치 실현···주택산업 한단계 도약"

#### 최갑렬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취임

"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지역주택건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 습니다."

최갑렬 제12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 주•전남도회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.

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업인 건설업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" 정기섭 회장 이임식과 제12대 최갑렬 회 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.

앞서 최갑렬 신임 회장은 지난달 29 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제12대 회장 으로 추대됐다. 최 신임 회장은 BBS광 주불교방송사장, 광주상의 부회장, 조 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, 삼일파라뷰문 화장학재단 이사장, 파라뷰미술관 이사

장과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으로 활동하고 있다.

최갑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"우리 지역은 제조업만으로는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 주택건설협회 광주·전남도회는 최근 다"며 "전·후방 연계 효과가 큰 기간산 라고 강조했다. 이어 "이를 위해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, 주택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경 제 가치 실현 및 시민과 업계가 상생하 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"며 "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는지 늘 고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겠다" 고 역설했다. 송대웅 기자 sdw0918@



최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·전남도회 회장 이·취임식에 서 최갑렬 신임 회장이 협회 깃발을 흔들고 있다

### 내년 광주 오피스텔 기준시가 2.69% 하락

#### 상업용 건물은 1.18% ↓ …전남 오피스텔은 0.82% 상승

광주지역의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 물의 기준시가가 각각 2.69%, 1.18% 하

텔 기준시가는 0.82% 높아질 전망이다.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'2026년 오 서울은 1.10%, 전남은 0.82% 상승했다. 피스텔·상업용 건물 기준시가'를 최종 고 시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한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.

락할 것으로 보인다. 반면, 전남의 오피스

·5대 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㎡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.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 준으로 조사됐다.

전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0.63% 하락했다. 지난해 (-4.78%) 와 올 호다. 정현아 기자 aura@gwangnam.co.kr

해 (-0.31%) 에 이어 3년째 내림세다.

지역별로는 대구(-3.62%), 울산(-3.43%), 세종(-2.96%), 광주(-2.69%), 인 천(-2.45%) 등에서 하락 폭이 컸다. 반면,

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.68% 낮아질 전망이다. 올해 0.51% 오른 데서 하락 전환 했다. 세종(-4.14%), 울산(-2.97%) 등에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 서 하락 폭이 컸다. 광주는 1.18% 내렸다.

>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1606 호, 상가 115만8845호 등 약 249만호로 전년보다 3.5% 증가했다. 광주의 고시물 량은 오피스텔 2만5551호, 상업용 건물 2 만3427호다. 전남은 오피스텔만 1만9043

## 내집마련예상소요시간 ※2024년하반기전국표본61,000가구방문면담조사결과, 자가가구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수(PIR) 중간값기준 13.0 6.3 6.3

**⑦**연합뉴스

### 생애 첫 주택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은 '7.9년

국토부 주거실태조사…1년 전 대비 2개월 늘어

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데까지 얼 개월 늘었다 마나 걸릴까.

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'2024년 주 2년 째 늘고 있는 추세다. 거실태조사'를 분석한 결과, 가구주가 된

최근 5년간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았을 수 추이를 보면 2020~2021년 7.7년이 소 때 평균 7.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 요됐다가 2022년 7.4년으로 줄었고, 이후

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 전년 대비 자가가구는 증가(57.4%→ 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구의 64.4%로 전년(60.7%)에 비해 연수는 7.9년으로 전년 (7.7년) 대비약 2 0.7%p 늘었다. 지역별로 도지역

(69.4%), 광역시 등(63.5%), 수도권 (55.6%) 순으로 자가보유율이 높았고,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.

자가점유율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.4%로 1년 전 (57.4%) 과 견줘 1.0%p 늘었다.

도지역(66.5%). 광역시 등 (60.0%), 수도권 (52.7%) 순으로 자가점 유율이 높아졌다.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58.4%, 임차 38.0%, 무상 3.6% 순으로 58.4%), 임차가구는 감소(38.8%→ 38.0%) 했다. 송대웅 기자 sdw0918@

### Lotto 6/45 **26** 30 33 38 39 41

### 로또 1등 10명…당첨금 각 29억5000만원

제119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'26, 30, 33, 38, 39, 41'가 1등 당첨번

호로 뽑혔다. 2등 보너스 번호는 '21'이다.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 첨자는 10명으로 29억5368만원씩 받

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

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6311만원씩 을,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10 명으로 158만씩을 받는다.

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(고정 당 첨금 5만원)은 15만5228명, 당첨번 호 3개가 일치한 5등(고정 당첨금 5000원)은 259만1974명이다.

연합뉴스

